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김기학-**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풍요의 계절 가을인 만큼 우리의 마음도 행복과 사랑으로 풍성해졌으면 합니다. <역사 속 언론>코너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조보에 대해서 다루어 주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전시대에도 신문과 같은 역할을 한 조보가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배층이나 학자 등 양반 위주의 소식을 전했던 만큼 수평적인 정보가 아닌 수직적인 정보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신문과 같은 언론이 군주제에서도 존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조보라는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공평 정대한 언론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김연태-

우리나라 언론의 시작은 '신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언론을 접할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신문이라는 매체가 가장 쉽게 언론을 접하는 국민들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본 신문과 언론(가칭 : 타임머신 언론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코너를 하나 만드는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1997년 8월의 신문에 보도된 모습과 현재 변화된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내용을 「언론  사람」에 넣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언론중재위원회
블로그 개설

pacblog.kr **NEW**

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